

초점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

희생자 모욕 '어묵' 사용... 제작진 문제의식 부족

지난 5일 방송에서 이영자가 매니저와 어묵 먹는 모습 보여주면서 뉴스장면 3개 편집

그 중 2개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한 특보

과거 세월호 희생자 모욕위해 단어 사용한 것 연상시켜 '과문'



지난 16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의 세월호 참사 특보 화면 사용과 관련한 조사위원회가 열렸다.

MBC TV 토요 심야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의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은 제작진의 문제의식 부족 탓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지난 16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의 세월호 참사 특보 화면 사용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밝혔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5일 방송에서 MC 이영자가 매니저와 어묵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과 함께 뉴스 장면 3개를 편집해 사용했다. 그 중 2개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MBC가 방송한 특보였다.

이 장면이 과거 일부 네티즌이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모욕하기 위해 '어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연상시켜 큰 파문이 일었다.

MBC는 프로그램 제작진은 물론 최승호 사장까지 나서 사과했고,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이어 조능희 기획편성국 본부장, 고정주 경영지원국 부국장, 전진수 예능본부 부국장, 오동운 홍보

심의국 부장, 이종혁 편성국 부장과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특위 위원인 오세범 변호사 등으로 조사위를 구성했다.

조사위는 10일부터 1, 2차 진상 조사를 벌였다. 조연출 등 관련자 동의 하에 대화 내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 등도 확인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해당 조연출은 특정 사이트(일간 베스트)에서 어묵으로 세월호 사건을 조롱한 사실을 알지 못 했다.그는 이영자가 고백하는 장면을 속보로 처리하

고자 속보 관련 뉴스 장면을 쓰려고 속보 뉴스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세월호 관련 뉴스 속보를 발견했다. 자막과 화면을 불러로 처리하면 아무도 세월호 사태 속보라는 것을 모를 것이라 생각했고, 내부 시시에서도 아무도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아 해당 방송은 송출됐다.

조사위원장인 조 본부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지만, 단순한 실수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방송사 윤리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해당 조연출과 연출, 부장과 예능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사측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제작 가이드 라인을 점검하고, 예능 본부 내 영상 사용 관련 매뉴얼과 시스템을 정돈하는 등 지속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한다.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본 출연진에게도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사태가 불거진 뒤 충격을 받은 이영자는 녹화에 불참했다. MBC는 이 프로그램 2주 결방을 결정했다. 일각에서 프로그램 폐지 주장도 나왔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뉴스시스



트와이스 '웨이크 미 업', 오리콘 1위

그룹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4연속 흥런'을 날렸다. 16일 현지에서 발매한 3번째 싱글 '웨이크 미 업(Wake Me Up)'이 오리콘 일간 싱글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발매 당일 11만 7486포인트를 기록한 전작 '캔디팝(Candy Pop)'을 넘어 일본 진출 한국 걸 그룹 중 발매 당일 싱글 최다 판매기록을 또 경신했다"고 자랑했다.

'웨이크 미 업'은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삼았다.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강한 마음을 응원하는 댄스곡이다. 트와이스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담았다.

한편 트와이스는 18~20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두 번째 투어 '트와이스랜드 존 2 : 판타지 파크(TWICELAND ZONE 2 : Fantasy Park)' 포문을 연다. 투어는 같은 달 26일과 27일 사이타마 수퍼 아레나, 6월 2일과 3일 오사카성 홀로 이어진다. /뉴스시스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제작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김꽃비와 김채희가 38주기 기념식을 진행한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사회자로 영화배우 김꽃비와 김채희가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임을 위한 행진곡' 주연 김꽃비·김채희, 5·18기념식 진행

두 배우는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 추모공연부터 마지막 순서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까지 50여분동안 호흡을 맞춰 행사를 이끌어 간다.

또 기념식 중간에 공연되는 시네라마 형식의 공연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네라마 작품은 5·18 당시 행방불명된 초등학교 학생들이 38년동안 찾아 다니는 아버지를 조망하면서 행복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낸다. 영화는 1980년 5월, 이철수의 의사 이 후로 시간이 멈춰있는 엄마 명희(김부선)를 이해할 수 없었던 딸 희수가 진실을 마주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시스



유나킴·전민주 여성 듀오 '칸(KHAN)' 결성

그룹 '디아크'로 함께 활동한 유나킴(24)과 전민주(24)가 듀오 '칸(KHAN)'을 결성했다. 23일 첫 싱글 '아임 유어 걸(I'm Your Girl)?'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두 사람은 각자 솔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유나킴은 2011년 엠넷 '슈퍼스타K 3'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으로 걸그룹 데뷔를 준비했다.

2015년 디아크로 데뷔했으나 이 팀은 바로 해체됐다. 이후 엠넷 '엔프리티랩스타3', KBS 2 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 더 유닛' 등에 나왔다.

전민주는 2012년 SBS TV 'K팝스타2'로 가요계에 발을 들였다. 디아크 해체 이후 지난해 그룹 '데이데이' 데뷔를 준비하다가 활동이 무산됐다. /뉴스시스



초아 없는 AOA, 1년 5개월만에 컴백

AOA, 6인으로 재편... 28일 미니앨범 '빙글뱅글' 발매

6인 그룹으로 재편된 'AOA'가 1년5개월 만에 컴백한다. 28일 다섯 번째 미니앨범 '빙글뱅글'을 발매한다. 타이틀곡 '빙글뱅글'은 '핑키한 서머송'을 표방한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AOA가 '빙글뱅글'을 통해 전매특허인 건강하고 밝은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2012년 데뷔한 AOA는 당시 댄스 그룹과 밴드 활동을 병행하는 팀으로 주목 받았다. 멤버 7명 중 지민(27), 초아(28), 유나

(26), 민아(25)에 밴드 활동에만 나서는 유경(25)이 가세, 5인 밴드 유닛 'AOA블랙'이 완성됐다.

하지만 유경을 제외하고 설현(23), 혜정(25), 찬미(22) 등을 더한 7인 댄스그룹이 '짧은 치마' 등으로 인기를 누리며 밴드 유닛은 없어졌다. 결국 유경이 2016년 팀을 나갔다. 이후 완전한 댄스그룹이 됐다. 지난해 6월 보컬 초아가 팀을 떠났다.

이번 앨범은 초아 탈퇴 후 6인 그룹의 첫 활동이다. /뉴스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